

마크 쿨란스키의 '소금의 세계사'

글 | 이 광 _ 계명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klee179@kmu.ac.kr

마크 쿨란스키는 1948년 미국의 코네티컷주에서 출생하여 역사와 음식물을 중심으로 작가활동을 전개했다. 그가 집필한 '대구: 세계를 바꾼 물고기의 역사', '소금의 세계사' 등은 높은 평가를 받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쿨란스키는 이 책의 집필을 위하여 중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를 여행하였으며, 고대에서 현대까지에 이르는 수많은 역사 문헌들을 뒤졌다. 그는 인간이 먹는 유일한 바위, 즉 소금을 주제로 크고 상세한 논픽션을 썼다. 시대는 중국왕조, 이집트왕조, 로마제국을 비롯한 고대문명에서 현대문명까지 수천년에 미치고, 관련 분야는 세계 각지의 매장, 광공업, 농업, 상업, 무역, 교통, 정치, 요리, 과학 등 여러 가지에 걸쳐 있다. 역사적인 사건의 틈새에 소금에 얽힌 뒷이야기, 인터뷰, 요리법이 들어있어 풍속사적 읽을거리로서도 즐기도록 만들어져 있다.

소금은 국력의 원천

중국만큼이나 오래된 문명인 이집트에서는 소금이 권력보다는



이집트 부제사장의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 물고기의 배를 갈라 소금에 저장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BC 1450년경의 것으로 추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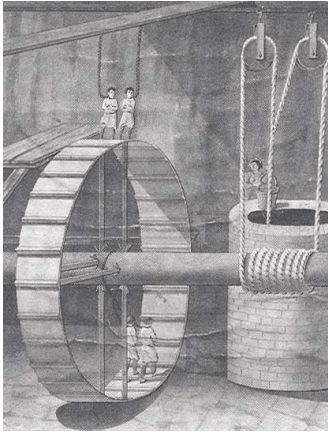
돈과 더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들거나 식량을 보존하는 데서 나아가 소금 무역에 일찌감치 눈을 떴고, 이 전통은 중근동 지역을 상인의 세계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중국에서는 춘추시대에 제(齊)의 관중(管仲)이 소금의 전매제도를 만들었다. 그는 국가가 소금을 수입하여 이익을 남기고 팔기 위해 소금값을 구매 금액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소금은 나라의 경제를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소금의 용도는 화폐 대용으로 썼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예를 사고 파는 값을 소금으로 치르기도 했다. 만약 노예가 미덥지 못하거나 게으르면 “소금 값어치가 없다”고 했다. 영어의 ‘salt’는 라틴어 ‘sal’에서 유래하였다. 샬러리(salary)는 급료를 의미하는 라틴어 ‘salarium argentum’, 즉 ‘소금을 사기 위해서 군인에게 지급되는 돈’에서 나온 것이다.

로마제국의 역사는 특권계급과 평민의 투쟁의 연속이었다. 인심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부는 모든 민민에게 소금의 공급을 선전하였다. 햇빛으로 건조시키거나, 단지에서 끓이거나, 늪의 식물을 태워 재에서 추출하는 등 소금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였다. 소금은 식탁에서 뿐만 아니라 야채를 절이고, 햄이나 가름(생선 액젓)의 재료가 되며, 귀중한 보라색 염료를 얻는데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이 귀중한 소금을 이탈리아반도에서 유통시키기 위해 ‘소금의 길(Via Salaria)’이 만들어졌다. 제국이 확장됨에 따라 먼 거리를 운반해야 하는 등 경비가 많아지자 로마는 여기저기에 제염소를 만들었고, 또는 켈트인들의 제염소를 빼앗기도 했었다. 제염소를 짓는 것이 제국 건설의 한 부분이라는 로마시대의 사고는 로마제국 붕괴 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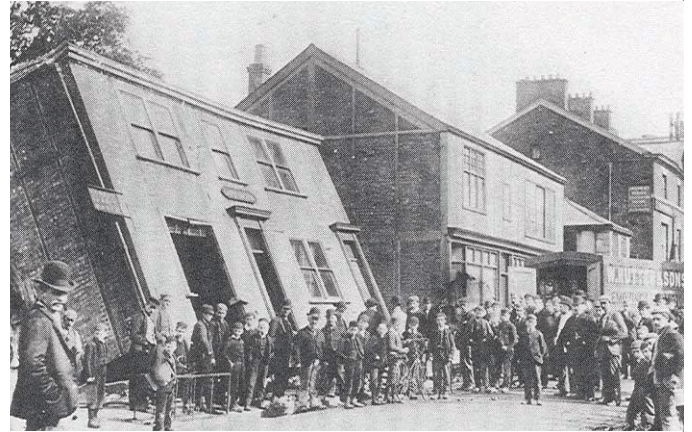
중세 유럽 사람은 육류보다 물고기를 즐겨 먹었다. 당시의 유럽인들을 배고픔에서 구한 것은 소금에 절인 대구와 청어였다. 물고



중세 말기의 판화. 살소마지오레의 소금을 퍼내기 위해 바퀴를 굴리고 있는 죄수들. 파르마 주정부 문서 보관소



소금그릇 시에라리온. 아프리카계 포르투갈, 사피의 공예가, 15세기 또는 16세기. 상아제품, 대영박물관 소장



침하하는 지반

기를 소금에 절이는 이유는 종교적인 육식을 금하는 습관과 맞아서 경제적인 것으로 변해갔다. 중세 가톨릭교회는 종교적인 날에는 육식을 금했는데, 7세기에 이르자 육식을 금하는 날이 많아졌다. 4세기에 시작된 사순절 금식이 40일로 늘어났고, 그에 더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금요일이 포함되었다. 이런 날에는 음식 금기가 엄격히 실시되었다. 금요일에는 성생활도 금지되었고, 식사는 한 끼로 제한되었다. 붉은 고기는 '뜨거운' 것이어서 섹스와 연관되기 때문에 금지되었다. 그러나 물에 사는 물고기는 차가운 것으로 간주되어 종교적인 날에도 먹을 수 있었다. 물고기는 먹어도 좋다는 면죄부가 교회에 좋은 수입을 가져왔다. 이 책에서는 이념보다 경제나 인간의 욕망이 역사를 움직이는 사례가 여러 군데 제시되어 있다.

소금은 통치의 수단

소금이 없는 곳은 없다. 영국에도 소금은 있었으며 체서 지방이 그 주산지였다. 영국 최대의 항구 리버풀은 바로 체서 소금을 위한 항구였으며, 식민지 지배를 위한 항구이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은 질 좋은 프랑스 천일염에서 독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특히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얻은 북아메리카의 대규 어장을 위해서도 그러했다.

신대륙 아메리카의 역사는 소금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북아메리카 인디언, 잉카, 아즈텍, 마야 문명에서 통치권은 곧 소금 지배권을 의미했다. 스페인과 영국 사람들이 들어오자, 이들 역시 목축과 염장생선 등 식민지 지배의 산업적 기초를 위해 소금 각축전에 들어갔다. 북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발전은 소금에 의해 시작되었다.

영국이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통제하는 데 이용한 결정적인 수단

은 소금이었다. 영국의 소금 공급에 의존하던 식민지 주민들은 자유로운 무역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소금의 자립을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미국 독립전쟁은 바로 소금 독립전쟁이기도 했던 것이다.

혁명 전의 프랑스에서는 지역에 따라 높은 소금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되기도 했고, 당연한 것처럼 소금의 밀수가 횡행하였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폭동이 빈발하고 있었다. 소금세는 프랑스 혁명의 방아쇠의 하나였다고 저자는 말한다.

18세기 영국은 농작물의 재배기간을 늘리는데 성공해 소금에 대한 의존성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량은 증가하였다. 영국은 산업화에 따라 진보의 면에서도 병폐의 면에서도 가장 선진국이었는데, 치열한 소금제조의 경쟁이 가져온 지반침하와 대기오염에 대한 서술과 사진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소금'을 키워드로 한 가장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라면 간디의 '소금의 행진' 일 것이다. 간디는 영국에 의한 소금의 독점관리에 저항하여 일어섰다. "소금이야말로 인도의 모든 계층의 생활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영국의 나쁜 정치의 증거이다. 누구라도 소금을 먹지 않는가"라며 소금의 행진을 시작했다. 간디의 말만큼 먹거리에서 본 소금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한 것도 없을 것이다.

19세기초에 데이비가 소금의 전기분해로 나트륨 분리에 성공함에 따라 소금의 성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고대 이집트인은 염화나트륨과 탄산나트륨이 다른 것을 알았고, 중세의 중국인은 질산칼륨에서 화약을 만들었다. 그런데 데이비 등에 의하여 소금에 대하여 알게 되면서 소금의 이용 범위는 비약적으로 넓어졌다. 염소는 표백, 물 처리, 하수처리에 이용되고, 플라스틱, 인공합성고무 등의 원료로 폭넓게 사용되었고, 드디어 독가스의 성분이 되기도 하였다. ㉔